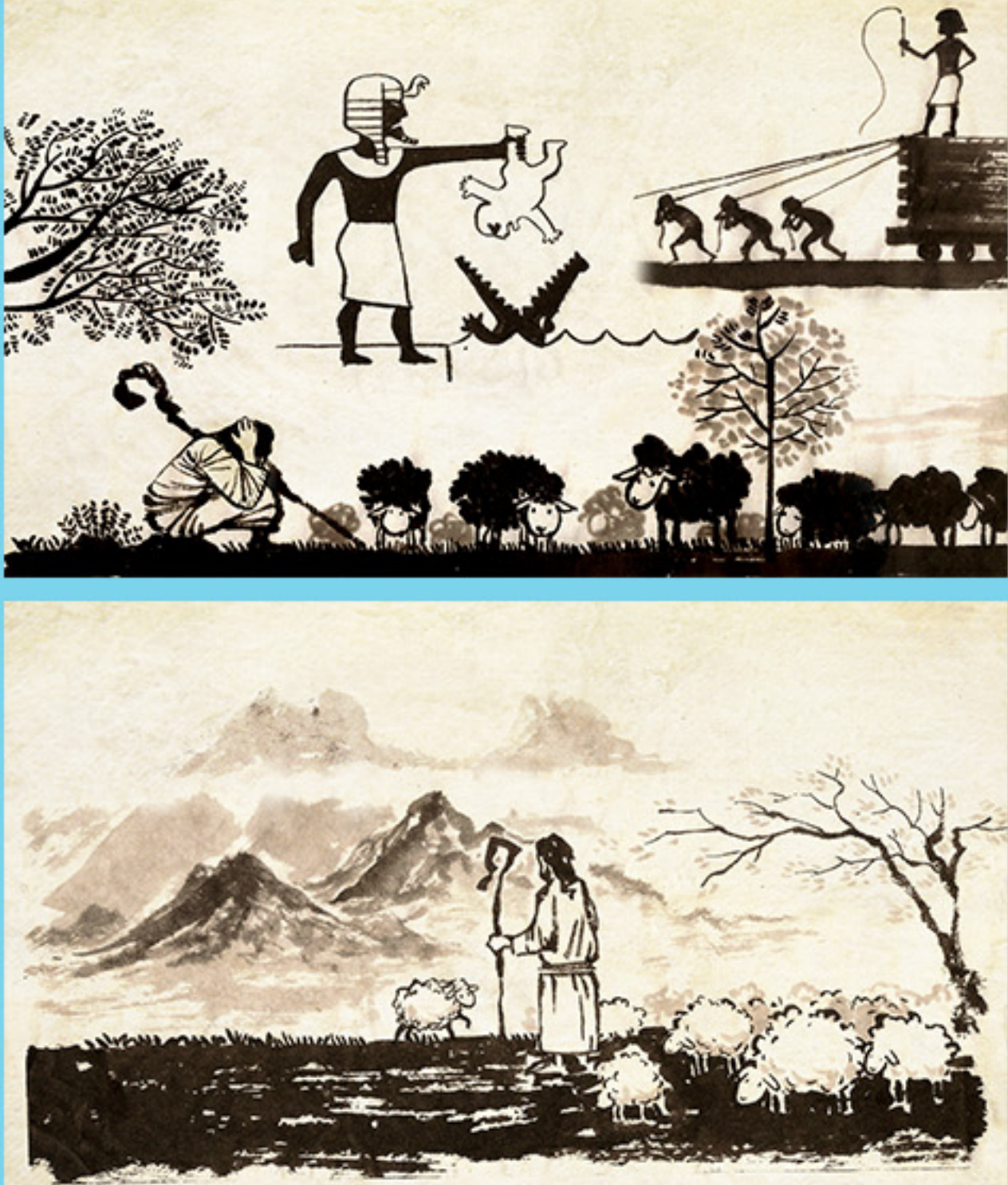


신발을 벗어라



나레이션

바로의 추격을 피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삶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했고 예전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모세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 가슴 속은 답답해졌어..
내 삶을 막은 것은 나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나레이션

하지만 모세는 점점 광야 생활에 적응해갔고
말 못하는 짐승들 속에서 인생을 보내면서
그렇게 평범한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

반복됐던 기나긴 날 속에 버려진 내 자신을 본 후
나는 없었어 그리고 또 내일조차 없었어..

나레이션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평소 하나님께 기도하곤했던 산으로 갔습니다.

모세

난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거지?
나는 지금 어디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거지?

나레이션

그 산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않고 멀쩡히 있는겁니다.
이 광경이 참으로 신기하여 자세히 보고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모세

예?... 예 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리로 가까이 오지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어서 신을 벗어라

모세

저... 제가 지금 오래 걸어서 발을 안 씻은 지가...
감당이 안되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괜찮다 벗어라

모세

네

하나님

나는 네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고 따랐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나오도록 할 것이다.

모세

네? 저를 보내신다구요? 저보고 이스라엘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구요?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말라

모세

네??? 아무리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보낼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그게 너다!

모세

저는 이제 막 광야에서 살만해졌고 제 나이가 80인데
저에게 일을 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 못합니다.
자꾸 그러시면 하나님 만날 때마다 신발 벗을거예요.

나레이션

모세의 거부와 하나님의 설득은 계속 되었습니다.

모세

아...아잇 좋아요. 제가 거기에 갔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온거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가서 그렇게 말해라

모세

아 그리구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아기 때부터 목소리가 굵어서 왕따였던 말이에요.

하나님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걱정하지말고 내 말 들어라 어서!

나레이션

긴 실랑이 끝에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에 설득된 모세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집으로 가야합니다.

바로왕

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놈들이!

모세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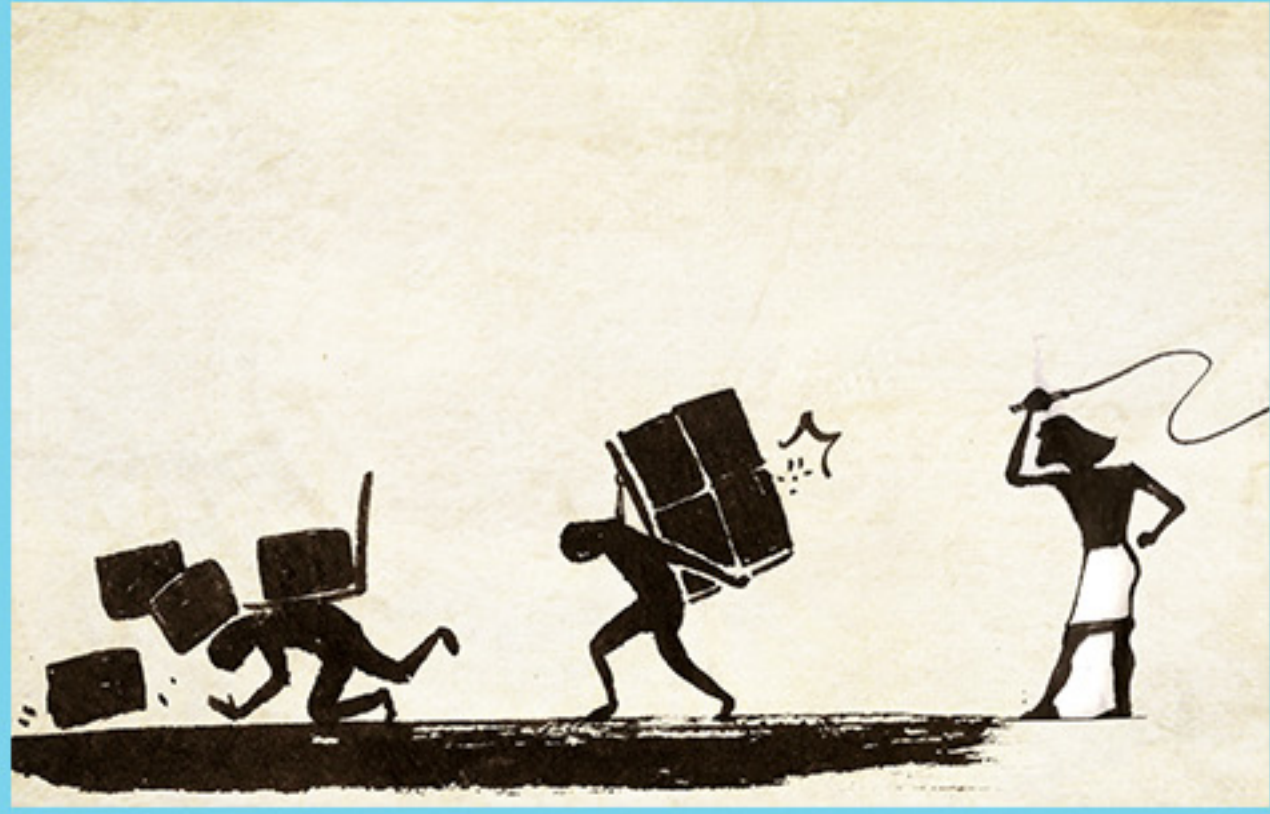
하나님? 하나님이 뭘데 내가 너희를 보내야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 절대 안돼!

신하

왕이시여 모세와 아론을 보니, 이 히브리녀석들이
그들의 신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되찾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면 이런 생각이 더 퍼져나갈까 염려됩니다.

바로왕

여봐라! 이놈들 딴 생각할 수 없도록 매일 밤 야근을 시키고
더욱 힘든 일을 시켜서 딴 생각을 조금도 못하게 하라!



나레이션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난 이후로
이스라엘백성들의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이스라엘백성1 모세 지가 대체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들어져야 해!

이스라엘백성2 우리집이 여기인데 어디로 간단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괜히 나서서 그래!

이스라엘백성3 아! 하나님 말씀이 뭐니 하면서 떠들더만,
결국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봐.

나레이션 모세는 애굽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모세는 간신히 간신히 지친 마음을 달래면서
혼자서 울고 있었습니다.

모세 흑흑 흑...왜 이리 힘든거야..흑흑

나레이션 바로 그 때!

하나님 모세야~